

아직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1. 전주 주가 추이

단위: pt, 원, 십억원, 배, %

	현재가	Mkt. Cap.	PBR (2019F)	PER (2019F)	ROE (2019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 W	1 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010	1,229,555	0.8	8.7	9.9	-1.5	-4.9	-11.6	-11.3	-1.5	-245	-47	24	1,243	7,518
KOSDAQ	664	123,841	2.1	14.8	15.6	-1.7	-6.2	-15.8	-16.8	-1.7	-298	-110	17	350	1,987
보험	16,190	19,003	0.5	9.7	5.7	-0.7	-3.4	-10.7	-8.4	-0.7	-14	14	-6	16	101
증권	1,618	17,391	0.6	8.3	8.5	-3.5	-9.7	-10.9	-11.5	-3.5	-33	20	-15	13	95
삼성생명	81,500	16,300	0.5	9.5	5.3	-0.1	-5.9	-15.5	-15.4	-0.1	-6	7	-4	1	10
한화생명	4,150	3,604	0.3	6.8	5.1	-1.7	-5.6	-21.3	-19.1	-1.7	-3	2	-2	1	3
동양생명	4,640	749	0.3	9.7	3.2	-2.7	-21.2	-25.3	-37.6	-2.7	-0	0	-0	0	2
삼성화재	272,000	12,886	1.0	13.6	7.5	1.1	0.0	-4.4	1.7	1.1	-3	7	-0	3	17
DB손해보험	70,700	5,006	0.9	7.1	12.6	0.4	3.8	-3.2	16.7	0.4	-0	1	-0	4	27
현대해상	39,900	3,567	0.9	6.7	13.6	-2.8	-1.4	-4.9	11.6	-2.8	-1	-0	1	5	26
메리츠화재	21,700	2,467	1.1	7.5	15.3	-0.7	2.4	11.6	11.6	-0.7	1	-1	0	1	8
한화손해보험	5,810	678	0.5	4.6	11.6	-1.7	-1.5	-14.9	-12.2	-1.7	0	0	0	0	1
삼성증권	30,750	2,746	0.6	8.8	6.5	-2.4	-2.5	-1.6	-7.4	-2.4	-0	1	0	5	28
미래에셋대우	6,400	4,213	0.5	9.3	5.7	-2.0	-11.1	-20.9	-20.0	-2.0	-5	3	-4	2	30
NH투자증권	12,200	3,433	0.7	9.9	7.1	-6.5	-12.5	-9.6	-12.5	-6.5	-15	8	-6	3	13
한국금융지주	57,000	3,176	0.7	6.1	11.9	-4.2	-17.5	-18.8	-28.7	-4.2	0	1	7	1	7
키움증권	74,800	1,653	0.8	8.2	10.4	-4.3	-13.8	-11.5	-24.1	-4.3	-6	1	-4	1	6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p>보험업종 강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강세를 시현하였음.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하지만 장기채권금리의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특히 ISM 제조업 지표의 부진은 향후 장기채권 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으로 연결되며 생명보험사들의 주가는 하락하였음</p> <p>▶참조 위험률 조정: 경험생명표 변경에 이어 건강보험 상품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참조 위험률의 변경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됨. 참조위험률은 3~4년 마다 보험개발원이 전체 보험사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위험률임. 9회 참조위험률에는 암 발생 확률이 남녀 각각 17%, 14% 낮아지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경우 암 진단비 담보가 약 10%내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입원비 또한 남녀 각각 16%, 10% 참조 위험률이 낮아졌음. 반면 수술과 관련된 참조 위험률은 상승하여 관련 담보의 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지난해 해 삼성화재는 실손을 제외한 기타담보에 대한 보험요율 조정을 하였으며 연초 나머지 보험사들의 보험요율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p>
증권	<p>증권업종 약세 시현: 전주 증권업종은 국내외 주식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시현하였음. 특히 미국 기술주의 급락과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 등으로 인하여 투자심리가 악화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p> <p>▶부동산펀드 투자 증가에 리스크 우려...금감원, 내년에 감독 강화: 부동산 펀드 수탁고가 급증하고 있음. 2017년 10월말 52.3조원에서 2018년 10월말 68.5조원으로 30.8% 급증하였음. 특히 해외부동산 펀드는 2017년 26.6조원에서 2018년 36.1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크 점검과 관련된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환율과 가치평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임</p>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Quarterly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누계	MoM	4Q17	1Q18	2Q18	3Q18	4Q18 누계	QoQ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8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8.5	-26.1	8.8	10.8	9.6	8.4	8.5	8.5	0.3	13.8	13.9	9.4	8.8	8.5	-3.7	
KOSPI	5.0	-23.1	5.2	6.1	6.1	5.3	5.2	5.0	-3.8	7.0	8.1	5.6	5.6	5.0	-9.1	
KOSDAQ	3.4	-30.1	3.5	4.7	3.5	3.1	3.2	3.4	7.0	6.8	5.8	3.8	3.3	3.4	5.4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9.3	-0.5	11.3	11.8	9.3	9.6	9.4	9.3	-0.5	11.3	11.8	11.8	9.4	9.3	-0.5	
KOSPI	4.8	-1.1	5.7	5.9	4.8	4.9	4.8	4.8	-1.1	5.4	6.0	5.9	4.8	4.8	-1.1	
KOSDAQ	4.6	0.1	5.6	5.9	4.5	4.7	4.6	4.6	0.1	5.9	5.8	5.9	4.6	4.6	0.1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74	-0.4	1.73	1.85	1.80	1.81	1.75	1.74	-1.0	1.89	1.85	1.85	1.75	1.74	-1.0	
3년	1.80	-0.3	1.91	2.00	1.94	1.90	1.82	1.80	-2.8	2.22	2.12	2.00	1.82	1.80	-2.8	
5년	1.87	-1.0	2.10	2.18	2.08	1.98	1.89	1.87	-2.7	2.43	2.35	2.18	1.89	1.87	-2.7	
10년	1.97	1.7	2.31	2.36	2.25	2.11	1.96	1.97	1.1	2.62	2.56	2.36	1.96	1.97	1.1	
약정 MS	%	18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5.8	-0.3	6.0	6.0	5.6	5.6	5.5	5.8	0.3	6.2	6.2	6.0	5.6	5.8	0.2	
미래에셋대우	12.8	0.1	12.2	12.3	12.0	12.0	12.3	12.8	0.6	13.3	12.8	12.3	12.0	12.8	0.8	
NH투자증권	6.6	0.1	6.9	6.5	7.3	6.3	6.6	6.6	-0.0	6.3	6.4	6.6	6.7	6.6	-0.2	
한국금융지주	5.9	0.5	5.4	5.6	5.4	5.4	5.4	5.9	0.5	5.7	5.3	5.4	5.4	5.9	0.5	
키움증권	17.5	0.0	17.4	17.4	15.9	16.5	16.8	17.5	0.6	17.5	18.2	17.2	16.4	17.5	1.1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 보험업종은 금리에 대한 부담과 4분기 부진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함 지난 12월 FOMC회의에서 점도표를 하향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둔화가 채권금리에 반영되고 있었으며 연초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의 부진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장기채권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였음.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주식시장은 안도하겠지만 장기채권 금리와 관련해서는 중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됨 장기채권 금리 하락은 EV 뿐만 아니라 IFRS17, K-ICS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장단기 금리차 축소로 인한 스프레드 마진 악화 측면에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임 우리는 손해보험 5개사의 합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컨센서스 대비 38.6% 낮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음.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의 영향임 생명보험 3개사의 합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흑자전환하겠지만 이는 삼성생명의 부동산 처분이익 때문이며 컨센서스를 17.6%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예상보다 부진한 4분기 실적으로 인하여 금주 보험업종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주 증권업종은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 환경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하방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함 전주 미국 기술주 폭락의 영향으로 증권업종이 크게 하락하였지만 KOSPI 및 KOSDAQ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전주 금요일 양호한 고용지표와 파월의장의 발언으로 미국 및 유럽 증시가 급 반등 하였음. 주초반에는 글로벌 주식시장 반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미국의 신규주문이 부진하였다는 점은 사실이고 미중 무역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Valuation 측면에서 매력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권유함. 4분기 증권사 실적은 Trading 손익 부진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분기 주식시장의 반등은 증권업종의 PI 성과 회복의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음. 반대로 1분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재차 확대된다면 주식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증권사의 경우 Valuation 측면보다는 Risk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1월 8일	미국	ISM 비제조업구매자지수 (12월)	60.7	59.0
1월 8일	영국	헬리팩스 주택가격지수 (YoY) (12월)	0.3%	0.4%
1월 9일	미국	노동부 채용 및 노동 회전률 조사 (JOLT) 빈 일자리 수 (11월)	7.079M	
1월 10일	미국	원유재고		
1월 10일	중국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MoM) (12월)	-0.3%	0.3%
1월 11일	미국	신규 주택판매	544K	569K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내년엔 건강보험료도 내린다...암보험 10% 인하 (뉴스핌)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을 반영한 참조위험률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이르면 내년 초에 암보험 등 건강보험 보험료가 10%이상 인하 될 것으로 보임.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에 전달한 8회 대비 9회 참조위험률 중 암 발생 확률은 남녀 각각 17%, 14% 낮아졌음.</p> <p>▶NH투자증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340억원 유상증자 결정 (인사이드) 경영채 대표가 이끄는 NH투자증권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증권의 사업 확대를 위해 304억원의 투자를 결정했음</p> <p>▶빅5 증권사 "내년 화두는 IB강화·글로벌 진출 가속" (서울경제) 초대형 투자은행(IB) 5개사는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 대응하는 한편 IB 부문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방침이며, 중소형 증권사는 자신들의 특화 영역에 중점을 더할 계획임</p> <p>▶킵스(K-ICS) 도입, 생보사 장수위험 5兆 증가... "고령화 대비해야" (이데일리)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장수위험'을 반영키로 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이 5조원 가량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p> <p>▶부동산펀드 투자 증가에 리스크 우려...금감원, 내년에 감독 강화 (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내년에 부동산 펀드 감독 강화에 나설 것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투자규모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임</p> <p>▶[시그널] 웅진, 자회사 담보로 1,500억 투자유치 추진 (서울경제)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웅진그룹의 지주사인 (주)웅진은 복수의 투자자들과 자회사를 담보로한 메자닌(주식과 채권의 중간성격) 투자유치를 논의하고 있음</p> <p>▶최저임금 후폭풍...손보 보험금 부담 2,000억 (서울경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금 상승효과는 1.5%p로 추정됨. 대인배상 중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상실수익 및 휴업손해 비중은 약 20~25% 수준임. 전체 보험금에서 대인배상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 (대물이 55%)임</p> <p>▶"중신연금 이제 못 파나"...금감원, 보험부채 만기 확대 영향 검토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RBC) 비율에 영향을 주는 보험계약의 최대 만기(보험부채 듀레이션)를 현행 30년에서 추가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이 연장되면 금리 리스크가 커져 요구자본이 늘어날 것임</p> <p>▶나신평 "증권사 우발채무 더 늘었다...건전성 영향 등 모니터링" (연합인포맥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내 증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증권사의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p> <p>▶보험료 대납까지 등장...새해 벽두부터 도 넘는 불법 영업 기승 (데일리안) 시장 전반의 역성장이 겹치지면서 보험업계의 걱정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영업 현장의 과열경쟁 우려도 함께 증폭되고 있음</p> <p>▶차보험료 인상... '최저임금·차량모델' 또 다른 변수 (아시아타임즈) 3월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8350원으로 전년보다 820원 오르면서 일용임금도 영향을 받아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p> <p>▶보험감독 혁신안 이달 공개...법 개정 최소화할 듯 (해럴드경제) 보험감독 혁신 TF의 핵심 관계자는 3일 "이달 20일 보고서를 금감원에 건네는 걸 목표로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음</p> <p>▶파리 1조 빌딩 인수전...韓 증권사간 경쟁 불었다 (머니투데이) 1조원에 달하는 프랑스 파리 대형 오피스빌딩 인수를 두고 한국 증권사간에 경쟁이 벌어졌음. 파리는 투자 물건이 귀하고 우량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여러 국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p>
----	---

7. Global Peers

		현재가	Mkt. Cap.	PBR	PER	ROE	ROA	Performance (%)				
		(Local)	(USD bn)	(FY19F)	(FY19F)	(FY19F)	(FY19F)	1 W	1 M	3M	6M	YTD
한국	KOSPI	2,010		0.8	8.5	8.3	6.7	-0.9	-3.2	-11.3	-11.6	-1.5
	보험	16,190		0.6	8.4	5.9	0.5	-3.2	-2.1	-10.8	-10.1	-0.7
	삼성생명	81,500	14.6	0.5	10.2	4.5	0.5	-3.0	-5.6	-15.9	-15.6	-0.1
	한화생명	4,150	3.2	0.4	6.5	5.5	0.4	-3.4	-5.6	-20.5	-18.8	-1.7
	동양생명	4,640	0.7	0.3	4.8	6.8	0.6	-4.2	-19.4	-25.5	-37.3	-2.7
	삼성화재	272,000	11.5	0.8	11.1	8.9	1.4	-2.3	-0.9	-3.9	1.7	1.1
	DB손해보험	70,700	4.5	0.9	7.3	13.4	1.6	-1.9	0.4	-3.4	17.6	0.4
	현대해상	39,900	3.2	0.9	7.0	13.7	1.1	-6.8	-3.4	-5.5	12.4	-2.8
	메리츠화재	21,700	2.2	1.1	8.0	14.6	1.5	-1.1	-2.0	11.6	12.7	-0.7
	한화손해보험	5,810	0.6	0.5	4.3	10.4	0.8	4.5	-1.9	-14.6	-11.2	-1.7
	증권	1,618		0.5	6.3	8.0	0.7	-4.2	-7.3	-10.0	-13.6	-3.5
	삼성증권	30,750	2.5	0.6	9.4	6.1	0.9	-4.5	-1.9	-1.0	-7.8	-2.4
	미래에셋대우	6,400	3.8	0.5	8.7	5.8	0.5	-3.6	-9.9	-19.3	-20.6	-2.0
	NH투자증권	12,200	3.1	0.7	8.4	8.1	0.8	-7.9	-10.6	-9.3	-12.9	-6.5
	한국금융지주	57,000	2.8	0.7	5.7	12.0	0.9	-2.9	-15.9	-18.9	-28.1	-4.2
	키움증권	74,800	1.5	0.7	6.8	11.5	1.6	0.8	-11.4	-10.1	-24.7	-4.3
일본	Nikkei225	19,562		1.5	14.1	10.4	2.0	-3.0	-9.8	-17.8	-10.2	-2.3
	보험	902		0.7	9.6	6.9	0.8	-1.8	-9.0	-20.3	-8.9	-1.5
	Dai-ichi Life Holdings	3,514	23.0	2.0	39.3	5.3	3.4	-1.1	-16.8	-27.7	-16.3	0.1
	Japan Post Insurance	2,519	13.9	0.7	15.2	5.1	0.2	0.5	-9.5	-8.1	10.8	-1.1
	Tokio Marine Holdings	5,217	34.6	1.0	11.5	8.3	1.6	0.4	-4.5	-7.1	-0.8	-0.4
	증권	315		0.7	10.8	4.3	0.2	0.4	-10.5	-24.6	-18.2	0.1
	Nomura Holdings	423	13.6	0.5	12.2	3.6	0.2	1.9	-12.6	-24.8	-19.7	0.6
	Daiwa Securities	564	8.8	0.7	9.8	7.3	0.5	0.1	-8.5	-18.6	-10.6	1.3
	SBI Holdings	2,121	4.6	1.0	8.1	13.3	1.4	-3.7	-17.7	-37.2	-19.5	-1.8
	Hang Seng	25,626		1.1	9.8	12.6	1.1	0.6	-1.7	-3.6	-9.5	-0.8
중국/홍콩	상해A주 지수	2,633		1.0	9.2	11.9	1.1	0.7	-3.5	-10.9	-8.5	0.8
	보험	122		1.0	8.8	11.5	1.9	-1.7	-8.2	-11.2	-13.1	-2.7
	China Life	16	77.7	1.1	10.6	11.4	1.3	0.6	-5.3	-4.0	-14.8	-1.4
	Ping An Insurance	67	153.1	1.6	8.8	20.6	1.6	-2.8	-13.4	-12.2	-3.3	-2.9
	AIA	63	97.8	2.0	15.3	14.1	2.4	-0.4	-2.1	-0.5	-5.3	-2.4
	증권	96		1.2	19.8	5.8	1.5	13.0	3.9	10.3	3.7	10.8
	CITIC Securities	14	27.0	0.9	12.1	7.6	1.8	3.8	-8.0	4.4	-7.6	2.4
	Haitong Securities	8	14.7	0.6	9.9	6.1	1.3	6.7	-14.1	12.1	5.1	3.6
	Huatai Securities	13	19.6	0.8	11.2	7.3	1.9	4.9	-6.4	15.3	8.9	3.1
	S&P500	2,532		2.7	14.8	19.5	3.6	1.7	-3.8	-12.3	-8.3	1.0
미국	보험	351		1.1	10.1	11.3	#N/A N/A	1.3	-1.7	-11.3	-6.2	0.5
	AIG	40	35.5	0.6	8.4	7.4	0.8	2.2	-1.4	-25.0	-25.5	2.0
	Metlife	42	41.7	0.8	7.6	10.8	0.7	3.2	-0.3	-10.6	-2.9	3.0
	Prudential Financial	85	35.1	0.7	6.6	11.5	0.6	4.5	-4.6	-18.6	-9.9	4.3
	증권	172		1.7	12.0	13.3	1.3	2.5	-1.3	-13.4	-13.9	1.6
	JP Morgan	101	334.8	1.4	10.0	13.8	1.3	3.8	-6.1	-12.2	-2.9	3.1
	Goldman Sachs	175	67.7	0.8	7.0	12.2	1.0	5.8	-5.0	-22.4	-20.7	4.8
	Charles Schwab	42	57.3	2.6	14.9	19.6	1.5	3.4	-1.3	-17.6	-14.2	2.2
	MSCI Europe	116		1.5	12.2	10.7	1.0	4.2	-0.6	-8.5	-9.9	1.8
	보험	69		1.0	9.1	13.0	0.6	3.8	0.1	-9.6	-5.0	1.0
유럽	Allianz	177	85.9	1.1	9.3	12.3	0.9	1.3	-3.8	-8.1	-1.5	1.3
	AXA	19	53.2	0.7	6.9	9.3	0.7	3.8	-6.8	-18.9	-8.9	2.0
	Prudential plc	1,384	45.7	1.9	8.5	21.6	0.7	3.0	-8.0	-18.3	-21.5	-1.3
	Munich Re	191	32.6	1.0	10.4	9.7	1.2	1.3	-0.4	-1.7	3.7	0.2
	증권	57		0.9	9.9	7.8	0.4	1.2	-2.9	-19.3	-20.8	-0.1
	UBS	13	49.5	0.9	8.5	9.9	0.6	6.0	-2.8	-15.1	-15.6	3.7
	Credit Suisse	11	28.9	0.6	7.3	8.6	0.5	4.0	-4.6	-21.5	-25.5	3.1
	Deutsche Bank	7	17.5	0.2	9.8	2.2	0.1	5.6	-7.7	-23.4	-21.9	6.7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I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741	1.751	1.815	1.864	1.834	1.751	-1.0	-7.4	-12.3	-9.3	-1.0
		3 Year	1.795	1.823	1.912	2.065	2.110	1.823	-2.8	-11.7	-27.0	-31.5	-2.8
		5 Year	1.865	1.892	1.975	2.244	2.347	1.892	-2.7	-11.0	-37.9	-48.2	-2.7
		10 Year	1.967	1.956	2.092	2.445	2.549	1.956	1.1	-12.5	-47.8	-58.2	1.1
일본	국고채	1 Year	-0.169	-0.146	-0.140	-0.121	-0.126	-0.146	-2.3	-2.9	-4.8	-4.3	-2.3
		10 Year	-0.038	0.003	0.074	0.159	0.029	0.003	-4.1	-11.2	-19.7	-6.7	-4.1
중국	국고채	1 Year	2.690	2.676	2.502	2.969	3.254	3.834	1.4	18.8	-27.9	-56.4	-114.4
		10 Year	3.138	3.310	3.339	3.625	3.520	3.310	-17.2	-20.1	-48.7	-38.2	-17.2
미국	국고채	1 Year	2.562	2.578	2.693	2.610	2.309	2.596	-1.6	-13.1	-4.8	25.3	-3.4
		10 Year	2.668	2.718	2.914	3.187	2.831	2.684	-5.1	-24.6	-51.9	-16.3	-1.7
유럽	국고채	1 Year	-0.561	-0.601	-0.567	-0.538	-0.555	-0.603	4.0	0.6	-2.3	-0.6	4.2
		10 Year	0.208	0.242	0.263	0.531	0.305	0.242	-3.4	-5.5	-32.3	-9.7	-3.4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12-31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자의견 비율(%)	90.9%	9.1%	